

농어촌공사 광주지사, 농업인 농지활용 적극홍보

주남현 기자 | 승인 2025.03.27 14:57

광산구 삼도동 본량동 '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' 설명회



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가 농업인들에게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. /사진=광주지사

[한스경제=주남현 기자]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가 농지 활용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.

광주지사는 지난 26일 광산구 삼도동, 본량동 마을회관을 방문해 영농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'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'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.

이 사업은 고령농업인(만65세~만84세이하)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, 개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.

가입 대상은 10년 이상 농업경영 중인 만 65세 이상 만 84세 이하 농업인 으로,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를 최대 4ha까지 신청할 수 있다.

가입자는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 중 선택할 수 있다. 매도는 농지 매도 대금과 1ha당 매월 50만 원(연 600만 원)의 은퇴직불금을, 매도 조건부 임대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, 농지임대료와 함께 1ha당 매월 40만 원(연 480만 원)의 은퇴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수령할 수 있다.

김철상 지사장은 "농업인들이 농지이양 은퇴직불가입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"고 밝혔다.



주남현 기자 tstart2001@sporbiz.co.kr